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⑱ 보문 선사의 구도 수행 6



▶한줄요약
상원사를 떠난 보문은 낙산사를 거쳐 봉암사에 들어가 1차 결사에 참여하고 다시 여러 도량에서 치열하게 정진하며 제방의 선지식들과 법거량을 이어갔다.

봉암사 결사 후 평생 '공주규약' 받들어

16. 상원사 떠나 낙산사로

상원사를 말없이 떠난 보문은 낙산사에 이르러 한암 스님께 편지를 올린다. 앞으로 '보문(普門)'이란 자호를 쓰겠다고 했다. 현로(玄路)라는 법명이 있었고, 자운(慈雲)이라는 법호를 한암으로부터 받았는데도 새로운 자호를 쓰겠다고 한 데서 보문에게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렇지만 한암은 그 뒤로도 "내 상좌 가운데 선에 대한 지견이 열린 사람은 보문뿐이다."라며 떠나간 보문을 잊지 않았다.

보문은 낙산사에 이어서 직지사, 도리사, 봉정사,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까지 두루 편력했다. 더욱 치열하게 정진했고 제방의 선지식들과 법거량을 했다. 직지사 천불선원에서는 탄옹, 법주사 복천암에서는 석상과 현칙, 해인사에서는 효봉, 통도사 극락암에서는 경봉과 만나 절차탁마했다. 어딜 가나 보문의 단골 소임은 공양주였다. 밥하고 반찬 마련하고 설거지하며 부엌일을 도맡았다. 오후에는 나무 한 짐을 해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울력 시간이 되면 먼저 나가서 똥지게를 졌다.

17. 봉암사 1차 결사 동참

1947년 가을, 보문의 발길은 통도사 내원암에 이르렀다. 거기서 성철(性徹, 1912~1993)을 만났다. 성철은 해방 전 대승사에 있을 때 청담과 뜻을 모았다. 하루빨리 공동 수행공간을 마련하여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서 한국불교를 혁신하는 결사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보문이 성철을 만났을 때 결사의 여건은 무르익었다. 보문도 결사에 동참하기로 했다. 성철, 보문, 우봉, 자운 등이 1947년 10월 봉암사로 들어갔다. 향곡, 청담, 서암, 월산, 종수, 청안, 일도, 홍경, 도우, 보경, 법전, 성수, 혜암, 정천, 의현, 지관, 혜정, 혜명 등 대중 30여 명이 이어서 동참했다. 봉암사 1차 결사가 시작된 것이다. 근처 암자인 백련암에도 묘엄을 비롯한 비구니 6명이 입주하여 결사에 동참했다. 봉암사 결사는 수행을 철저히 실천하고, 율장 정신에 의거하여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청규인 〈공주규약(公主規約)〉도 만들어 따랐다.

그렇지만 봉암사 1차 결사에 보문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뭘까? 보문과 성철, 향곡(香谷, 1912~1978)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수로는 보문이 성철, 향곡보다 6살 많았지만, 출가 시기는 향곡이 가장 빨랐고(1930년), 성철과 보문은 6년 뒤에 출가했다.

선방을 이끄는 입승의 존재는 결사의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성철은 자기가 입승을 하고 싶다며 서암에게 지지를 부탁했지만 서암은 보문을 지지했다. 선방 대중들은 무자화두에 대한 소견을 들어보고 입승을 뽑기로 했다. 압도적 지지를 받은 보문은 완강히 사양했다. 재투표까지 하여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보문이 입승 노릇을 하게 됐다.



보문은 상원사를 나온 후 낙산사를 거쳐 직지사, 도리사, 봉정사,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등 여러 도량에서 수행했다. 사진은 낙산사 원통보전 모습.

결사 운영과 수행방식을 두고 성철과 보문의 의견이 갈렸다. "책을 보지 말고, 아는 소리를 하지 말자"고 약속했지만 성철은 꽤 많은 책을 옮겨와 계속 읽었다. 보문은 "참선한다는 사람이 책만 들여다 보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세월이 흐른 뒤 성철이 법문 중에 수좌들이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향곡은 성철이 책을 더 많이 읽는다고 외치기도 했다고 한다.

반면 성철과 향곡은 의기투합하여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향곡이 한 달이 지나도 〈범망경〉을 외우지 못하자 성철이 경책했다. 분발한 향곡이 마애불 앞 개울가로 가서는 밥도 먹지 않고 참구하여 닷새 만에 나름대로 깨달았다 생각하고 성철을 불러냈다. "아만통을 내려놓아라!"며 호통을 쳤다. 밀고 당기고 서로 안고 굴렀다. 보문을 향해서는 "아만이 탱천해서 성철의 말을 안 듣는다!"고 꾸중했다. 향곡이 도인으로 살아왔는데 문득 나타난 보문이 자꾸만 걸리는 것 같아 그랬다는 전언이 있다.

성철도 보문을 봉암사 개울 자갈밭으로 불러냈다. 성철이 보문에게 먼저 질문을 했다. 질문이 열 개 가까이 되었다는데 보문은 빠짐없이 답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철은 "그건 아니다", "그건 틀렸다"며 보문의 답을 인정하지 않았다. 출가 전에 이미 한학을 연마했고 상원사에서 견성했으며 한암과 탄허로부터 선어록까지 공부한 보문이 성철의 질문에 대해 하나도 답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

봉암사서 1차 결사에 동참하고
성철 · 향곡과 문답 · 법거량해
누더기 차림 법주사서 명법문

성철의 질문이 끝나자 이번엔 보문이 성철에게 물었다. "우리가 사시마지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부처님은 공양을 어떻게 잡수시냐?" 성철은 "내가 답을 하면 곧이듣겠느냐?"라고 말하며 대웅전 쪽으로 걸어 가버렸다.

사건은 정진 시간에 터졌다. 보문이 죽비를 들고 오후 대중 정진을 주재하고 있는데 기왓장이 날아왔다. 전언은 향곡이 던졌다는 것과 성철이 던졌다는 것으로 엇갈린다. 어떻든 선방 문을 열어 재치고서 나타난 쪽은 성철이었다. 성철은, "아까는 내가 몰라서 답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야!"라고 외쳤다. 냇가에서 보문이 한 질문에 대해 성철 자신이 답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한 해명이었다.

경허 이후 한국불교의 선풍을 최고로 드높였다고 평가되는 위대한 선승 성철과 향곡이 이 무렵에는 이렇게 보문을 대했다. 성철에 의해 기록된 결사자 명단에 보문이 빠진 것은 아마 이런 사연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일찍이 육조에서 비롯한 남종선의 전통은 '누구에게나 법을 설한다[普說].'는 것이지만 도일이나 석두 이후로는 수행자들 간의 절차탁마를 중시하면서 개별적 질문과 답변, 반문을 통해 서로의 경지를 부수고 다듬어 주는 전통을 만들었다. 문답은 사제 간이나 도반 사이에 이뤄졌으니 개오(開悟)의 계기가 되고 선체험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런 전통에서 보면 성철, 보문, 향곡 간의 문답과 법거량은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어떤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하든, 승패가 아닌 개오와 절차탁마를 추구해야 했다. 그 무렵 성철은 다소 경쟁적이어서 '이기고 지는' 것에 몰두했다는 인상을 준다. 보문의 답변을 모두 틀렸다고 부정하고 정진하고 있는 도반에게 자기가 답변 하지 못한 이유를 변명하고 있는 데서 그런 점을 느낀다.

이 국면에서 보문의 '여임의 자기서사'가 다시 작동한다. 함께 살아가는 타인이 자기에게 지나친 언행을 했을 때 그에 대해 항의하여 바로 잡거나 자기를 변호하는 대신 그냥 그로부터 떠나가 멀어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보문은 성철 등과 결사를 주도했지만 그 뜻을 더불어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순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봉암사를 떠나갔다. 그 뒤로 그 사연에 대해 말을 아끼다가 생애 끝자락에 이르러 변죽만을 울렸다.

보문의 떠남은 향곡과 성철에게도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성철은 무자화두에 대한 법론에서 보문에게 뒤쳐진다는 걸 느끼자 더 치열하게 공부했다고 한다. 그 무렵 보문이 월등했다고 대안(大安, 1951~)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나도 다 된 줄을 알았는데, 솔직히 그 분[보문] 때문에 더 분발했다." 성철은 보문을 '참 공부하는 사람'으로 인정했고, 자기가 보문을 "본받았다"고도 말했다.

향곡은 보문을 보고 분심을 더 내서 마침내 견처가 열렸다고 한다. 향곡도 자신의 오만함과 지나침을 인정하고 세월이 흐른 뒤 직지사 천불선원에 있던 보문을 찾아가 그 일을 사과했다.

보문은 봉암사를 떠난 뒤로 평생 밖을 나갈 때는 삿갓을 쓰고 석장을 지녔다. 〈공주규약〉에는 '출원(出院) 유방(遊方)의 때에는 삿갓을 쓰고 석장을 지녀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 보문이 봉암사를 떠나서도 〈공주규약〉에 깃든 결사정신을 받들려 했던 것이다.

18. 법주사 법문

보문은 봉암사를 나와 법주사 암자인 복천암으로 갔다. 아직 병이 다 낫지 않은 몸이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물지게를 졌고 여전히 공양간 일을 했다. 이런 보문을 법주사 대중들은 하찮게 여기고 수군댔다.

누더기 차림의 보문이 법주사 대웅전에서 법문을 하게 됐다. 선방 수좌들의 추천이라고도 하고 법주사 주지 장석상의 추천이라고도 한다. 법주사 대중들과 대처승들은 법상에 오른 사람이 나무하고 물만 져 나르던 그 사람임을 알고 놀라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이 있으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보문이 입을 열었다.

"이곳이 충청도(忠淸道)입니까?" "예" "충청도는 예로부터 나라에 충성하는 고장입니다. 여기 나라에 충성한 이는 누구입니까?"

"이곳이 보은군(報恩郡)입니까?" "예" "보은군은 예로부터 은혜에 보답하는 곳입니다. 여기 불보살의 은혜에 보답한 이는 누구입니까?"

"이 산이 속리산(俗離山)입니까?" "예" "속리산은 세속을 여의는 도량입니다. 여기 세속을 떠나 진심으로 출가한 이는 누구입니까?"

"이 절은 법주사(法住寺)입니까?" "예" "법주사는 법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기 과연 정법에 머무는 이는 누구입니까?"

가식적 이름만 내세우고 그와 괴리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을 향한 이 간명한 법문은 그들 가슴에 그대로 꽂혔다. 자기들이 얼마나 불성실하게 겉치레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절히 각성하고 탄복했다. 명법문이라며 달라진 눈빛으로 우르러보는 사람들을 두고 보문은 또다시 그곳을 떠날 결심을 하고 있었다.

〈연세대 객원교수〉

외부 필자의 연재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엄사 부설 화엄불교복식연구소 창립기념 특별전
'화엄사색(華嚴四色)'
2022.7.27.(수) ~ 2022.10.10.(월)



참여작가
윤정숙, 박춘화, 안영숙, 강선정,
김봉숙, 서정아, 심지윤, 이경희, 이미현, 정미자, 허윤

화엄사성보박물관 57616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기획 화엄사성보박물관 부관장 강선정 / 큐레이터 서정아 / 에듀케이터 관희천
진행 서정아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 화엄사성보박물관
주관 화엄불교복식연구소